- 1. 음성 회의 요약 AI
- \* 동일한 서비스 개발중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196

2

# 1.1. 회의록 양식

- 기본 양식 : 일시, 장소, 작성일, 참석자, 내용, 향후일정, 특이사항

	±1 01 =	
Incuration -	회 의 록	
<b>회의개요</b> 일 시	장 소	
작성자	작성일	
참석자	702	
안 건		
회의내용		
회의내용		
결정사항		
향후일정		
E0111-1		
특이사항		

※ 희의록 작성받법 및 유의사학

회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따른 회의내용을 삼세히 기재한다.

<sup>+</sup> 회의록 작설 시 회의내용을 객관적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 - 상황별 양식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formstory&logNo=221637388306&proxyReferer = https://2Fwww.google.com/2F

->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 포맷을 여러 개 놓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기

#### 1.2. 관련 사례 참고

- AIQ video Q&A: 질문을 하면 AI가 유튜브 내용으로부터 답변해줌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5/2020101502668.html)
- AI스퀘어(일본): 음성 내역 요약 전부 AI에게 맡기다 (http://innoinfo.org/board/index.html?id=news&page=6&asort=hot&no=23)
- 네이버 NEST : 네이버가 회의록 음성파일을 문서로 정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공개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349)
- 문서요약 텍스트 AI 데이터셋
- Al 속기 + 음성 인식 https://www.sorizava.co.kr/voice/intro.php

#### 1.3. 필요성

- KPMG voice AI 보고서(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20/04/issue-monitor-126.html) : 주로 음성 인식 기술을 다룸 ex) 시리 참고할만한 내용은 보안 문제, 성능, 개방형 전략 추구

>> 음성 AI 시장 확대를 위한 3가지 선결 과제

##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 ✓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필요
- ✓ 보이스 쇼핑에서 음성 기능 활용 시 결제 사기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기술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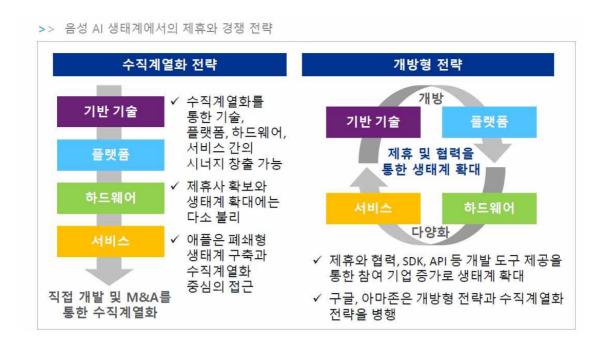
### 음성 AI 성능 향상

- ✓ 영어 음성 인식 기능의 정확도는 95% 이상까지 향상되었지만, 한국어 음성 인식 기능의 정확도는 더 향상 필요
- ✓ 문맥을 이해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AI 개발 필요

##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킬러 서비스 등장

- √ 확장 기능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양적인 증가
- ✓ 음성 AI의 특징을 잘 살린 서비스 증가
- ✓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Must-Use) 킬러 서비스의 등장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 화상회의 AI 전망 : 우리 아이디어도 포함 https://blog.naver.com/applenews7/222200456802

이를테면 AR을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지능형 문서 검색도구, 회의 참석자 식별 기능, 회의 목록 자동 정리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2021년 이후엔 화상회의에서도 한층 높은 수준의 AI 기능이 화상회의 기술 발달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시간 회의록정리, 회의 요약과 핵심 정리 등이 그런 경우다. AI를 활용해 발언 시간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불참자에게 내용을 자동으로 중계해주는 기능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중에 연관 문서를 자동으로 검색하기도 한다.

#### - 같은 걸 개발하는 분들의 의견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AI 자동 회의록 작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준다. 이는 대면 회의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서비스 시장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유 대표는 "솔루션 국산화를 통해 외산 화상회의 서비스 이용률 축소를 기대한다"면서 "데이터망과 음성통화망 융합 기술개발로 화상회의를 위한 데이터망 성능이 떨어지는 해외시장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코로나 시대에 온택트 회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 서비스 플랫폼은 재택근무와 유연 근무, 원격지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 시에도 동일한 회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도 크다. 유 대표는 "비즈니스 업무, 상담, 종교, 교육 등 음성인식을 통한 자막 및 자동 회의록 제공으로 다양한 분야의 모임 등에서 서비스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실시간 음성인식 기반 자막 작성 기술과 향후 TTS 기능(본 개발 범위 외 기능)과도 연동한다면 청각 장애인도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2. 폐기물 드론

- 단순히 감시용 드론이라면 이미 충분히 개발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https://www.yna.co.kr/view/MYH20171013021500038

- 폐기물 아이디어의 문제점은 사업성이라고 생각ㅠㅠ

의료 폐기물의 경우에는 워낙 올해 급증 + 계속 비용 인상 + 병원이 부담하는 구조라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버리는 일반 폐기물의 경우에는 사업 이익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저번에 언급했던 내용

- 소비자 : 개별 소비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 (개인은 쓰레기를 나름대로 분리수거 해서 버리면 그만 이니까! 공유지의 비극 같은 문제)
- 기업 : 투자 대비 재활용으로 얼마나 큰 수익이 나올 것인지..?

(재활용으로 인한 수익) +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 처리 감소에서 생긴 이윤) +(사회적 이미지) - (투자 금액) > 0? 일 것인가 하는 의문

- 결론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에게는 위의 AI가 도입되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 따라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환경(공공재)를 위한 일이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자유시장에서는 글쎄? 라고 생각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위의 항목(2,3)을 평가할 때 이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ㅎㅎ